Issue No. 11

ERAP EDU NEWS LETTER

TEYL CENTER / VOLUME 11, FEBRUARY 2012

Dr. Shin's Education Column

이달의 주제
문법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영어공부를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문법은 영어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이다.

필자는 영어문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영어문법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들 언어학자나 영어교육하자들이 말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영어습득을 위해 언어 '형태(form)'나 '의미(meaning)'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이다. 21세기에 들어 영어교육의 주류는 '의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고력'과 작용하여 인간의 언어능력을 키워주고, 영어의 '유창성(fluency)'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법을 강조하여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 신규철 교수
한국영어독서교육학회

more

대화식영어책읽기

"Dual Language Dialogic Reading 이렇게 해보세요"

DLDR 하기 좋은 영어 그림책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기 앞서 읽을 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고 아이가 재미있어 할 만한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이 키포인트 입니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을 고를 때, 영어 그림책의 종류와 특징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글자 없는 그림책 – 이름 그대로 글자는 거의 없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책 입니다. 그림만으로도 이야기의 내용과 흐름이 뚜렷하여 기본 줄거리는 누가 읽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른 이야기로 만들수 있으며,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발동할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글자없는 그림책은 그림만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엄마의 영어 능력 정도에 맞추어, 또 아이의 우리말과 영어 능력 정도에 따라 이야기의 길이나 단어의 난이도를 조절해 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 어느 연령층이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Nursery Rhyme – 구전되어 내려오는 동시들을 모아 그림과 함께 엮어놓은 그림책을 Nursery Rhyme또는 Mother Goose Rhyme이라고 부릅니다.

– 김진영 교육학박사

more

강서도서관 영어독서진단
- 초등생을 위한 무료진단 실시 -

서울지역 3차시 도서관 무료진단 행사로 강서도서관에서 1월 16일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독서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서지역 어린이들의 영어독서진단을 통해 강서도서관을 찾는 학부모님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열의와 신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내내 어린이들의 영어 독서력과 표현력에 감탄하였고 이런 결과에는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영어 독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진단결과는 단계별 도서 리스트와 함께
2월 중순에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강서도서관에서 1월에 신청못하신 부모님들 문의가 많아 3월에 2차 진단을 기획중입니다.

강서도서관 링크

이달의 추천 그림동화:
Me on the Map

초등학교 시절 대동여지도 제작 과정을 만화로 만든 책을 읽으면서 처음 지도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를 저는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린 저에게 종이 한 장에 펼쳐지는 그 광활함과 섬세함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도를 꼼꼼하게 보고 또 보았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근사한 추억을 남겨 주고 싶으시다면 Joan Sweeny 의 Me on the Map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직접 지구본에서 여러 나라들을 찾아보고 지도에서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목적지를 정해보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Activity Click!

키즈업북클럽 작가등단
온라인 작가등단 1월 주인공

EVERY KID HAS A STORY!

www.kidzup.co.kr 사이트에서 상시 진행하고 있는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코너"에 참가한 친구들 중 **1**월의 작품의 선정된 친구를 소개합니다.

윤정민 친구는 현재 숭인초등학교 **3**학년으로 이번 작품에서 멋진 그림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성혁 선생님의 **KidzUp Fun Reading** 수업 중 접하게 된 **Arthur Howard**의 **When I was Five**을 읽고 본인의 스토리를 간결한 영어 글쓰기로 잘 풀어냈답니다. 이 달의 키즈 작가에게는 선물과 상장을 보내드립니다.

작품링크

키즈업펀스토리텔링
Playbook 활용법

김지희 연구원/ 개발기획

• • •

키즈업플레이북의 테마 Animal&Bugs 중에서 이번 달에는 Dear Zoo의 Teaching Guide를 싣습니다.

Target Sentences:
I will send him back/ I will keep him
Sight Words: keep/ send
Phonics: Z/z
Activity: 사자 만들기, 동물원에 편지 쓰기

Before Reading

(1) zoo animals, farm animals, pets를 구별하고 pet의 개념 알기

Have you ever been to the zoo?
What did you see?
Who did see a lion?
I saw a lion.
An elephant? A giraffe?
A snake? A monkey? A camel?
A frog?
Who lives at the zoo?
Lions, giraffes, elephants, camels, snakes.
Who lives on the farm?
Cows, pigs, ducks!
What animals can we keep in our house?
Dogs, cats, monkeys, birds.
We can call all these animals pets.
We can keep in our house.
We can live with them together.

Comprehension Playbook

1)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전체의 모습을 완성한다.
Can you guess what it is?
It might be a giraffe.
Which part of this giraffe is missing? A long neck.
Can you find a neck sticker?
Put it on the missing part.
(camel-hump/ monkey-tail/ Elephant-giraffe)

Activity Playbook

1) 동물원에 내가 원하는 애완동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의 편지 써보기 활동

Let's write to the zoo!
Please, send me (좋아하는 동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도무방)
From (자기 이름)

2) 액티비티 페이지를 반으로 접고, 테이프로 붙여서 편지 뒷면이 동물 케이지가 되도록 만든다.

스틱 동물카드를 집어 넣은 후 Dear Zoo tune으로 노래를 부른다.

They sent me a giraffe.
It was too tall.
I sent him back

3) 사자모형 퍼즐을 원하는 색깔과 무늬로 색칠하고 조립한다. 물감을 사용할 경우 물을 섞지 않은 아크릴 물감이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색칠하면 질감을 더욱 살릴 수 있다. 퍼즐이 틀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색칠하고 마지 모형눈을 붙인 후 마지막으로 조립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Let's make a fierce lion.
Roar roar.
Don't take it apart yet.
Color it Color it.
Then take it to pieces.
Put them together to make a lion.

이달의 그림동화 작가 소개

Rod Campbell

- I won't Bite!
- Little Bird
- Dear Zoo

Rod Campbell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의 로디지아에서 자랐습니다. 후에 영국에서 유기화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따지만 전공을 그만두고 그림에 몰두하게 됩니다. 1979년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 책, 숫자놀이, 알파벳 놀이, 베드타임 스토리 등 100여권의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주로 펼쳐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책 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유머와 재미를 더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명료하고, 밝은 그림과 단순한 글은 Rod Campbell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